

韓國工藝史研究 30년 : 陶磁器

金 載 悅

〈目 次〉

- | | |
|-----------------------|-----------------------|
| I. 回顧 | 3. 發展期(1960年代~1970年代) |
| 1. 初創期(1880年代~1910年代) | 4. 成熟期(1980年代) |
| 2. 形成期(1920年代~1950年代) | II. 展望 |

주어진 과제는 韓國陶磁史研究 30년의 回顧와 展望이지만, 1960년 이래의 研究 成果들이 그앞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年을 무시하고 研究史의 출발에서 지금까지 한국 도자사의 研究史의 變遷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시작을 1880년대로 잡아보니 110년이란 긴 기간이 되어, 먼저 가시적으로 研究性向이 크게 변하는 4시기를 임의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전체 研究方向과 도자사연구에 필수적인 窯址調査(考古學的 成果도 포함), 그리고 著述로 나타난 研究성과의 3대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낙 긴 기간을 한정된 여건 아래에서 소화하려다 보니 자연 개략적인 연구사의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도자사연구에 대한 연구사적인 接近論考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이번에 연구사의 흐름을 정리해본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따라서 주요한 爭点이나 個別研究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전체적인 展望에서 包括的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앞으로의 課題로 삼는다는 것으로 전망을 대신 하였다.

I. 回顧

韓國陶磁史 研究는 1880년대 高麗古墳에서 출토된 高麗陶磁器의 존재가 歐美人과 日人들의 호기심을 끌면서 시작되어 오는데 이르고 있어, 110년에 가까운 긴 學史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1910년대까지는 순전히 骨董의인 취미와 극히 초보적인 概念把握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1920년대에 와서야 비로서 日本人學者에 의한 학문적인 研究성과가 나타나고, 1930년대에 들면서 본격적인 研究활동이 이루어져 그 이후로 전개되는 도자사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갖가지 성과가 나타났다. 해방전까지 비교적 활발한 研究활동이 계속 되었으나, 그러나 해방 이후 6·25를 거치는 1950년대말까지는 사회적 혼란으로 韓國陶磁史 研究는 거의 담보상태에 머물렀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서야 국내의 유수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학자들에 의한 한국도자사 연구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자사 연구의 과거는 이렇게 1960년을 起點으로 하여 크게 일본인학자 중심의 연구기간과 국내학자 중심의 연구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60년 이전의 상황은 다시 1920년을 기준으로 初創期와 形成期로 나누어볼 수 있고, 1960년 이후에도 1980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20년은 發展期로, 1980년대 10년간은 成熟期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初創期(1880年代~1910年代)

한국도자사 연구는 1880년대에 列強의 침략과 때맞춘 高麗古墳의 파괴에 의해 高麗靑磁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시작되었다. 歐美列強들의 骨董의 취미와 民俗學의 연구자료의 대상으로 고려청자를 위주로 한 콜렉션이 이루어 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한국도자기에 대한 흥미와 理解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1880~1890년에 이미 美國의 '워싱턴 스미소니언協會,' 'Peabody博物館,' '보스턴美術館' 등이 한국도자기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간략한 圖版들이 발간되었다. 특히 1888년에 발간된 英國領事 W.R.Carles의 『한국에서의 生活』이란 책에는 開城의 高麗古墳에서 도굴된 靑磁에 대해 言及하고 있다.

1905년, 露日戰爭을 전후하여 道路와 鐵道建設 작업중에 고려고분에서 우수한청자들이 多量으로 출토되면서 호사가들의 관심을 끌게되자 1907年을 전후하여 고려고분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1913년~1917년 사이에는 江華島의 13세기경 고분들이 약탈당했으며, 급기야 1916년에는 '古墳盜掘禁令' 이 내려지게끔 되었다. 이런 고려고분 도굴의 와중에서 점차 고려자기의 實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더불어 한국도자 전반에 대해 차츰 관심이 일기 시작했지만 아직 별다른 학술적인 접근은 없이 다만 歐美나 日本의 有數한 콜렉터들의 한국도자기 수집이 계속되어 'Freer', '보스턴美術館', '클리브랜드美術館', 英國의 'Victoria Albert 美術館', 'Honolulu 美術館', '메트로폴리탄美術館' 등의 한국도자 주요 콜렉션이 대체로 이 1910년대에 이루어졌다. 國內에서는 '李王家博物館'이 건립되어 1912년에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真帖』이 발간되었는데, 여기에 陶磁器 1,200점이 소개되었고, 1910년에는 최초의 高麗陶磁展示會가 개최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업적은, 1914년 朝鮮總督府의 末松熊彦이 全南 康津郡 大口面일대에서 대규모 청자요지를 발견하여 최초로 고려청자 製作地를 밝힌 사실이며, 앞서 1913년에는 李王家博物館의 命을 받은 八木槎三郎이 계룡산, 永同, 高靈, 金海, 慶州 등지에서 신라및 조선시대 요지를 조사한 바 있었다. 1916년에는 今西龍의 지도아래 明宗 智陵이 발굴되어 12세기말 灰畷靑磁의 상황이 알려졌고, 이무렵에 12세기전반 翡色靑磁 最盛期の 대표작인 仁宗 長陵 출토품이 명확한 기록없이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는 조선말기 白磁類 중심의 民俗의 意味 외에는 거의 없었으며, 다만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그들이 독특하게 발달시킨 茶道와 관련된 粉靑沙器類에 막연한 관심을 가졌을 뿐, 별다른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오직 1913년에 한국에 와서 이후 한국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淺川伯教가, 이무렵 서울 景福宮 등의 궁궐 내에서 일어난 각종 토목공사 중에 발견된 朝鮮陶磁片에 대해 관심을 갖고 粉靑沙器와 白磁의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2. 形成期(1920年代~1950年代)

1920년대부터 한국도자사 연구에 대한 활발한 학술적 업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1930년대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도자사연구의 기틀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고, 歐美에 소수의 한국도자관계 학자들이 있었으며, 한국인 학자로서는 유일하게 高裕燮이 있었다. 특히 '30~'40년대에 이루어진 성과들은 이후 한국도자사 연구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韓國陶磁의 基本分類에서 부터, 用語의 設定, 時代區分, 文獻의 考察, 窯址調査, 紀年銘 資料整理, 中國陶磁와의 관계, 美學的 鑑賞에 이르기까지 두루 기본적인 성과들을 이루어 놓았다.

이 시기 도자사연구의 기본방향은, 高麗陶磁의 경우,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을 기본으로 하고 『高麗史』 『李奎報文集』 『李穡文集』 등에서 나오는 관계 史料를 통한 文獻史的 접근이 되어, 여기에 紀年銘 있는 몇개의 考古學的 類例가 첨가되고, 中國陶磁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遺址조사는 지표조사에 그치고 발굴은 전혀 없이 수차례 試掘 정도만 하여 存在確認 수준에 머물렀다. 즉, 이들의 연구방향은, 미술사 연구에 필수적인 樣式論的인 접근은 거의 무시되고 당시에 유행한 實證史學的인 방법이 응용되면서, 한편 植民地 史觀의 대표적인 停滯性과 他律性의 論理에 입각한 도자사 연구를 진행시킨 것이다.

朝鮮時代 陶磁研究의 경우도 역시 『朝鮮王朝實錄』을 근간으로 成俔의 『慵齋叢話』,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各種 文集類등에 의한 文獻史學的 접근이 주축이 되었으며, 白磁研究에는 특히 『世宗實錄地理志』에 관심을 집중시켜 廣州 分院의 변천에 관심이 컸으며, 전국적인 遺址조사가 행해졌지만, 대체로 靑磁研究만큼의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아닌, 개략적인 흐름의 파악에 그친 정도이다.

粉靑沙器 研究의 경우는, 특히 일본의 茶道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으며, 계룡산 鐵畵粉靑沙器나 粉引粉靑沙器에 관심을 갖고 遺址조사가 이루어졌고, 官司銘이 있는 粉靑類에 대한 고찰들이 두드러졌을 뿐이다. 대체로 조선시대 도자사의 연구는 質量面에서 고려청자 연구에 비해 뒤졌다고 보여진다. 이 시기를 年代별로 나누어 좀더 구체적으로 성과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20年代

- 窯址調査 : 遺址조사는 1927년에 野守健에 의해 최초이자 '50年代 까지 유일한 발굴조사가 鷄龍山 鶴峰里 粉靑沙器 窯址에 대해 실시되었다. 당시 고려시대 遺址조사는 이 野守健에 거의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 遺址조사는 주로 淺川伯教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淺川은 이 시기에 거의 발표가 없이 자체적인 조사만 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50年代에 가서야 밝혀진다.

野守健은 1927년에 大田市 鎮峯面에서 靑磁窯址를 발견하고, 1928년에는 康津 大口面의 窯址分布圖를 작성하고 桂栗里 28號 가마를 조사하였으며, 1929년에는 扶安郡 柳川里에서 또다른 대규모 이 청자요지를 발견하였고 同年에 黃海道 松禾郡 周村의 청자요지를 발견하였다.

- 研究成果：주요 연구논문으로는 1922년에 柳宗悅의 『白華』誌에 「李朝陶磁の特質」이란 小考를 발표하여 조선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高潮시키는데 큰 몫을 하였으며, 1923년에 奥田誠一가 한국도자 一般에 관하여 新羅以前, 新羅, 高麗, 李朝의 4期로 나누어 개괄한 「朝鮮の陶磁器に就いて」란 글을 『國華』誌에 연재하였다. 최초의 가장 본격적인 高麗陶磁研究者로 손꼽히는 中尾万三의 「高麗古陶磁考」가 1925년에 발표되어 南方靑磁起源說, 象嵌法 出現 과정에 관한 假說 등이 등장하였다. 1928년에는 內山省三이 매우 主權的이고 探美的인 방법으로 고려도자를 연구한 결과를 「高麗陶磁に就いて」란 글로 발표하였다.

2) 1930年代~1945年

- 窯址調査：역시 野守健에 의해 1937년에 高陽郡 元興里와 平南 江西郡 苳茨面 二里의 高麗靑磁窯址가, 1938년에는 鎮安郡 道通里에서 고려청자 요지가 발견되었으며, 1938년에 柳川里 12號 窯址와 沙堂里窯址를 試掘하여 고려백자의 존재와 象嵌 및 辰砂彩의 燒成證據를 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1932년에는 金剛山 月出峰에서 1391年銘이 있는 중요한 白磁一括品이 발견되었다.

조선시대 요지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 같이 淺川伯教에 의해 더욱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성과들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 研究成果：이 시기에 이루어진 각종의 연구성과들은 주로 『茶わん』, 『陶磁』, 『やきもの趣味』 등의 陶磁專門雜誌에 게재되었는데, 1930年代에만 약 70여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陶磁』6-6 (1934)는 韓國陶磁 特輯號로 중요한 자료와 論考들이 실렸는데, 이 중 淳化4年銘壺가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단행본들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연구자의 수도 많이 늘어나 中尾万三, 內山省三, 野守健, 淺川伯教 외에도 小山富士夫, 久志卓眞, 奥平武彦, 山田萬吉郎, 小田省吾, 松平義明, 加藤灌覺, 淺川巧, 笠井周一郎 등과 한국인 미술사학자 高裕燮이 있었고, 歐美에서는 英國 大英博物館의 Hobson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분야와 연구방법이 있었는데, 中尾万三은 專門 化學者로 現地調査와 文獻記錄 研究를 겸하여 그 결과를 『朝鮮高麗陶磁考』(1935)란 저서로 발표하였고, 野守健은 總督府의 陶磁調査 책임자로 온건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간결한 서술이 특징으로 풍부한 요지조사 경험과 냉정한 사실분위의 입장은 지녔으며, 1944년에 출간된 『高麗陶磁の研究』는 고려도자연구의 기준이 되는 책으로 지금도 그 기본틀은 有用할 정도이다. 內山省三은 앞의 野守健과는 정반대의 主觀的인 서술의 美學的 接近으로 유명하며 1933년에 『朝鮮陶磁考』란 책을 출판하였다. 內山省三은 “고려청자는 나의 宗教이다”라고 하면서 東洋精神의 정수인 静寂의 美를 대표한다고 극찬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아름다움이 당시의 陶工들이 政治的인 핍박과 오랜 가난의 질곡, 끊임없는 전쟁의 시달림등에서 오는 허무적이고 敗北的인 마음 즉 삶을 放棄한 상태에서 오는 無念의 境地

에서 이루어 졌다는 歴史的 敗北主義에 근거하는 해석을 가하고 있다.

小山富士夫는 東洋陶磁 一般에 대한 깊은 理解를 바탕으로 高麗陶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여 『陶磁講座』에 「高麗の古陶磁」(1937)란 논문을 발표하였고, 高裕燮의 『朝鮮の靑磁』(1939)는 한국인에 의해 씌어진 유일한 논문이었다. 小田省吾는 한국도자사에 관계되는 文獻을 바탕으로 文獻史的 接近에 주력하여 『朝鮮陶磁史文獻考』(1936)를 발간하였으며 松平義明은 銘文있는 資料를 분석, 연구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조선시대 도자사연구 중 粉靑沙器는 당시 ‘三島’란 이름으로 통칭되었으며, 일본이 자랑하는 茶道와의 관련으로 많은 주목을 끌었으나 의외로 수준높은 연구는 별반없이 奥平武彦, 野守健, 松平義明, 山田萬吉郎등에 의해 수편의 논고가 발표되었는데 이름은 주로 官司銘 中心의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다만 山田萬吉郎이 다년간 務安지방의 요지조사를 토대로 印花粉靑系와 귀얄粉靑系의 兩系統의 發生傳播說을 주장하였으며 이들 논고를 모아 『三島刷毛目』(1943)이란 책을 출간하였다. 高裕燮은 1941년 「高麗靑磁と李朝陶磁」란 글에서 三島의 명칭 대신 ‘粉粧灰靑沙器’란 용어의 사용을 주장한 점이 주목된다. 조선시대 白磁研究는 柳宗悅, 淺川伯教, 淺川巧, 奥平武彦등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柳宗悅은 民藝의 觀點에서 朝鮮陶磁의 特質把握에 힘썼으며, 奥平武彦은 『陶器講座』 20卷에서 明, 淸文化와의 접촉을 기준으로 하여 朝鮮陶磁의 編年을 시도하였다. 조선시대 도자사연구에 가장 큰 성과를 남긴 인물은 淺川伯教로 요지조사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世宗實錄地理志』를 바탕으로 수십년간 전국에 걸친 粉靑, 白磁요지조사를 실시하고 시기별로 구분 정리하였는데, 그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매우 유용하다. 淺川巧는 淺川伯教의 實弟로 器物의 명칭과 용도에 관한 考察集錄인 『朝鮮陶磁名考』(1931)란 力著를 남겼다.

3) 1945年~1950年代

이 기간은 解放및 6·25戰爭을 거치는 사회적 격동기로, 國內學者의 조사연구는 全無한 채, 일본과 歐美에서 이때까지의 성과를 정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55년에 일본의 河出書房에서 간행한 『世界陶磁全集』 13, 14권의 韓國編으로 이때까지 한국도자사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있다. 小山富士夫가 모든 편집을 담당하였고, 高麗編에는 小山富士夫, 野守健, 淺川伯教, 尾崎洵盛, 中川千咲, Gompertz, 佐藤雅彦이 집필자로 참여하였으며, 李朝編에는 小山富士夫, 田中豊太郎, 笠井周一郎, 淺川伯教, 山田萬吉郎등의 일본인 학자들의 논문이 실려 있다. 특히 이조편 속에 淺川伯教의 「朝鮮の窯跡と採集品の記録」은 자신의 해방전 요지조사를 총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전국에 걸친 靑磁, 粉靑, 白磁窯址 총750여개를 所在地, 種類, 時期別로 소개하였다.

이 시기에 구미에서는 Honey의 고려와 조선도자에 관한 두편의 논문과 Gompertz 의 「Black Koryo Wares」(1950), 「Koryo White Porcelain」(1954)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3. 發展期(1960年代~1970年代)

1960년대가 시작되면서 韓國美術史學界는 새로운 전기를 맞아, 미술사 각방면에서 우리의 손에 의한 연구활동이 왕성해졌는데, 1960년에 창간된 考古美術同人會의 『考古美術』과 國立博物館의 『美術資料』가 그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도자사 연구는 역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60년대에 이루어진 가장 큰 성과는 각종 窯址에 대한 지표조사 및 학술발굴조사이었으며, 연구논문은 별반없이 다만 고고미술과 미술자료에 자료소개 수준의 短文들이 여러 美術史家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어 '70년대에 들어서자 비로소 '60년대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 의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일본인학자 중심의 도자사연구 수준을 벗어나게 되며 이후에 전개되는 연구활동에 큰 디딤돌이 되는데, 이 '60~'70년대의 20년간이야말로 韓國學者에 의한 도자사연구의 發展期라 할만 하다.

1) 1960年代

• 窯址調査 : 이 시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崔淳雨 鄭良謨 양인에 의해 주도된 각종 요지조사 및 발굴조사가 최대의 성과였다. 光州 忠孝洞 粉靑沙器窯址(1963), 潭陽 寒水洞 朝鮮時代窯址(1963, 全南大), 康津 沙堂里 靑磁窯址(1964~1977), 廣州 道馬里 初期白磁窯址(1964, 1965),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1965, 1966), 扶安 柳川里 靑磁窯址(1966) 등의 중요한 발굴조사가 행해졌다.

이런 발굴조사를 통해 靑磁發生과 起源에 관련된 綠靑磁 문제를 제기하였고, 養怡亭의 神話的 記錄이 사실임을 밝혔으며, 粉靑沙器의 形式變遷의 파악과 初期白磁 및 靑華白磁의 樣相把握 등의 多大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립박물관에서는 窯址의 지표조사를 행하여, 公州 新永里의 靑磁窯址 및 北漢山 일대의 고려말 청자요지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龍仁 西里의 고려초기 백자요지가 鄭良謨에 의해 再조사되었다.

한편, 울릉도 天府洞古墳發掘調査(1963)에서는 羅末麗初의 것으로 보이는 灰釉土器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청자발생과정에 중요한 시사를 던져 준 것도 특기할만 하다.

• 研究成果 : '60년대에 발표된 도자사 관계논문은 위의 요지조사에 대한 간략한 報告文이 중요하며, 『考古美術』誌에 자료소개 위주의 短文들이 약 60여편, 『美術資料』誌에는 7편의 小考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崔淳雨, 鄭良謨에 의한 紀年銘 있는 新資料의 소개가 주요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외 주목되는 논문으로는 姜萬吉의 「朝鮮前期工匠考」(史學研究, 1962), 「分院研究」(亞細亞研究, 1965)와 姜敬淑의 「李朝粉靑沙器의 研究」(梨大史苑, 1964), 印花粉靑의 文樣變遷過程을 밝힌 鄭良謨의 「粉靑沙器 印花文대접試考」(歷史學報, 1965) 등이 있었다.

2) 1970年代

- 窯址調査 :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국립박물관이 沙堂里에서 '60년대에 이어 계속 실시하여 12세기 靑磁가마遺構가 조사되었을 뿐 다른 요지발굴조사가 없었다. 지표조사는 역시 국립박물관에 의해 실시되면서 瑞山 梧沙里, 保寧 沙湖里, 月城 來台里 등에서 중요한 청자요지들이 발견되었다.

한편, 1976년에 新安 앞바다에서 元代 沈沒船이 발견되어 대량의 宋, 元代 中國陶磁器들이 인양, 조사된 것은 국내외로 도자기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한국도자사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國際學術會議가 '79년에 개최되기도 하였다.

- 研究成果 : 1970년대에는 앞서 '60년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국내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견해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質的으로 많은 발전을 보았고, 그결과 도자사연구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게 되었다.

이 새로운 연구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의 同和出版公社에서 발간한 『韓國美術全集』가운데 陶磁編에 실린 崔淳雨의 「高麗時代の陶磁」와 鄭良謨의 「朝鮮王朝의陶磁文化」란 두편의 論考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고들은 이제까지 일인학자들이 주장해 온, 한국도자사의 기본흐름이 中國陶磁의 절대적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他律性的 論理와는 달리, '60년대의 각종 조사연구를 근거로 하여, 한국도자사의 변천과정이 오히려 內在的 發展要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兩人에 의해 제기된 주요 사항들을 보면, 고려陶磁의 新羅土器 繼承發生說과 自體의 技術的, 社會的 動因에 의한 高麗陶磁 시기구분 시도, 고려 금속공예영향에 의한 象嵌靑磁發生說등이 있고 鄭良謨는 粉靑沙器의 소멸이 조선시대 도자기의 白磁化가 主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白磁의 형식변천과 分院의 固定에 중점을 둔 새로운 조선도자의 3時期 編年法등을 시도 하였다. 이같은 한국도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60년대 이후 民族主義史觀의 內在的 發展論에 영향받은 바 크다고 믿어지나, 무엇보다도 上記 兩人이 직접 십수년간 전국의 요지를 답사하고 직접 발굴조사하였으며 일찌기 陶磁史方法論에서 경시되어왔던 樣式的 考察에 穿鑿한 그러한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짧은 두편의 논고였지만 학문적으로 기여한 바가 매우 컸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도자사연구는 日人의 수준에서 벗어나 국내학자 주도의 연구로 전환된 것도 의미깊은 일이었다.

이렇게 도자사연구가 국내학자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증거하는 대표적 例가 '70년대 후반 일본의 小學館에서 발간된 『世界陶磁全集』중의 「高麗」(18卷, 1978), 「李朝」(19卷, 1980) 두책으로, '50년대 河出書房의 『陶磁全集』이래 새롭게 나타난 자료와 그간 한국에서 집적된 연구성과를 재차 총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집필이 국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본격적인 한국도자 개설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중 崔淳雨의 「高麗陶磁의編年」, 鄭良謨의 「高麗陶磁의窯址と出土品」·「李朝陶磁의編年」, 姜萬吉, 宋贊植의 「官營經營と沙器匠」등의 논문이 주목되며 특히 鄭良謨에 의한 새로운 조선시대 도자의 편년및 廣州分院窯址들의 시기구분은, 지금까지 다소 미약하고 애매한 조선백자의 연구수준을 본격적으로 분석, 정리한 뛰어난 성과로 꼽힌다.

한편, 「考古美術」과 「美術資料」에도 20여편의 자료소개 및 연구小考들이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자료소개 수준의 單文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鄭良謨의 新安海底出土 中國陶磁에 대한 小考가 두편 있어, 中國陶磁史 연구에도 관심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주목되는 논문으로는, 문양과 유약의 변천등을 살펴 상감의 발생이 12세기초 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 鄭良謨의 「靑磁象嵌發生의 側面的考察」(澗松文華, 1974)과, 經濟史的 側面에서 分院의 構成과 運營등을 상세히 다룬 宋贊植의 「李朝後期手工業에 관한 研究」(韓國文化研究叢書, 1973), 처음으로 靑華顏料를 工業的으로 分析研究한 金碩煥의 「李朝靑畫白磁考」(檀國大論文集, 1973), 일본인으로 한국에 유학와서 康津 청자요지를 實査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청자의 발생을 張保皐의 海上活動과 관련지어 고려청자가 강진에서 9세기전반경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吉岡完祐의 「高麗靑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崇田大博物館, 1979) 등이 있었다.

日本에서는 제2세대 한국도자연구가인 長谷部樂爾, 香本不苦治, 伊藤旭太郎 등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成果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日本內에서 한국도자관계 글들을 발표하였으며, 雄山閣에서 새로운 『磁器講座』로 「朝鮮 I」(長谷部樂爾編, 1971), 「朝鮮 II」(香本不苦治編, 1976)를 발간하였다. 이 冊에서 長谷部樂爾는 한국에서 청자의 발생이 中國 越州窯와의 밀접한 영향관계 때문에 9세기초년경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4. 成熟期(1980年代)

1980년대 들어 사회,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과 더불어 도자사연구분야도 비약적인 성장을 보게 된다. 이때까지 거의 崔淳雨, 鄭良謨 二人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도자사연구에 신예학자들이 참가하여 數的인 증가를 이루었고,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한 새로운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 연구수준이 보다 심화되고 체계화 되며, 각종 요지조사와 특히 왕성하게 벌어진 國土改發에 따른 救濟발굴조사가 여러 차례 행해지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급증하였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지난 10년간 이루어져 한국도자사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전히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 窯址調査

'80년대에는 요지조사연구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행해져 도자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었다. '60, '70년대의 소규모적인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考古學者들의 참여 내지는 협조를 얻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행해져, 窯址發掘調査方法에서도 많은 진전을 보았다. 저수지 건설로 인해 국립박물관이 행한 康津 龍雲里 9, 10호 靑磁窯址 發掘調査(1980~1982년 실시, 報告書未刊)에서는 4基의 진흥가마遺構가 발굴되면서 해무리굽碗類와 관련된 고려초기 靑磁樣相에 대한 新資料들이 많이 나왔으며, 雅山댐 건설로 인한 水沒地區 발굴조사를, 圓光大學校와 馬韓百濟文化研究所가 실시한 高敞郡 龍溪里 初期靑磁窯址發掘調査(1983년 실시, 報告書 '85년 간행)에서는 가마遺構, 建物址의 발굴과 함께, 大平壬戌年(1022년) 명문이 있는 瓦片이 발견되어 이 요지의

절대연대가 밝혀졌으며, 아울러 해무리굽과 관련된 고려초기 청자상황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梨花女大博物館에서는 中部高速道路 건설에 따른 구제발굴조사로 廣州 樊川里5號 白磁窯址와 仙東里 2, 3號 白磁窯址에 대해 실시하였는데('85, '86년실시, 『廣州朝鮮白磁窯址發掘調查報告』, 1986), 樊川里 窯址에서는 처음으로 조선전기의 가마유구와 作業場施設을 찾아내었고, 堆積層에서 '嘉靖33年'(1554)銘 白磁陰刻墓誌片이 발견되어 16세기중엽경의 백자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仙東里窯址에서도 가마유구 일부와 퇴적층이 조사되었는데, 1640~1649년에 해당되는 10年分の 干支銘片이 모두 출토되었고, 2호, 3호요지 사이의 主窯, 從屬窯 관계를 통해 廣州一帶 官窯의 窯址間성격규정 연구에 큰 보탬이 되었다. 이어 이화여대박물관은 住岩泔水沒地區調查時, 全南 昇州郡 後谷里 소재의 조선중기 백자요지를 발굴조사하여(1986, '87년실시, 『住岩泔水沒地區發掘調查報告書(V)』1988), 17세기 地方鐵畫白磁 産地의 양상을 처음으로 밝혔는데, 이곳에서는 진흙으로 構築된 간가마(連室窯) 유구와 수비통이 딸린 作業場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 동발굴팀은 靈岩郡의 요청으로 靈岩 鳩林里의 統一新羅土器窯址를 발굴조사하여(1987년실시, 『靈岩鳩林里土器窯址發掘調查』, 1988), 통일신라시대의 토기가마유구 5기를 발굴하였고, 폭넓은 堆積層調查를 실시하였는 바, 통일신라 土器相의 연구에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요지의 時代設定에는 7~10세기 까지 그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으며 保寧 眞竹里 통일신라토기요지와와의 관계등 미해결된 문제가 많으나, 앞으로 통일신라토기에 미친 唐代 陶磁의 영향관계나 통일신라토기와 陶器發生 사이의 관련여부등 도자사연구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의 이같은 국토개발에 따른 요지발굴조사 외에, 湖巖美術館에서는 자체적으로 龍仁郡 西里에 위치한 국내유일의 初期高麗白磁窯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1984, '87, '88년 3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하였는 바(1차조사보고서 '87년발간, 2·3차報告書 未刊), 建物址및 83m에 달하는 超大形 진흙가마와 40여m의 벽돌가마유구들이 발견되었으며, 두께 6m에 달하는 堆積層調查에서는 先해무리굽—해무리굽—輪形굽時期에 해당되는 4개의 自然層位가 조사됨으로써 지금까지 最古 굽型式으로 여겨왔던 해무리굽보다 더 이른 시기의 것을 확인하였고, 해무리굽층에서 象嵌片을 발견하는등 성과가 매우 컸다. 또한 1次調查報告書에서는 考古學的 分析理論을 도입하여 요지조사 접근방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되는 성과였다.

한편, '70년대의 新安海底遺物 발견에 이어, 莞島郡 漁頭里 海底에서 高麗磁器 貿易船이 발견 조사되어(1983, '84년조사, 『莞島海底遺物』, 1985), 11세기후반으로 추정되는 약 30,000점의 방대한 고려도자가 인양된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도자기의 생산지가 海南郡 珍山里窯址로 比定하게 되어, 당시의 도자기에 대한 수요, 공급관계등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요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새로운 요지들이 계속 발견되었고, 보다 상세한 지표조사들이 행해지면서 많은 新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들 요지조사는 국립중

양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등의 기관과, 尹龍二, 姜敬淑등의 개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손에 의해 楊州 釜谷里(1982년 발견), 高敞 盤溪里(1983년 발견), 扶安 牛東里·新福里, 高興 雲垆里(1984년 발견) 등지에서 初期청자요지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釜谷里와 雲垆里 청자요지는 청자발생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요지이다.

1983년에는 海南郡 山二面 珍山里의 海岸一帶에서 綠靑磁, 鐵畫靑磁 위주의 대규모 고려도자 窯址群이 발견되어, 綠靑磁의 西海岸 地方磁器說을 주장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前述한 바 같이 莞島 漁頭里 海底出土 靑磁類가 이곳에서 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11세기 중후반의 증거들도 많이 나왔다.

窯址調査의 성과 가운데, 尹龍二는 '70년대 이래 수년간 廣州일대의 백자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각 요지의 특성및 형식변천들을 통해 본격적이고 심도있는 廣州官窯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뛰어난 論考를 발표하였으며 (『朝鮮時代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 考古美術, 1981), 이어 崔淳雨, 鄭良謨는 '60년대 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기 까지 조사된 요지를 집성한 최초의 窯址資料集을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을 통해 발간하였는데 (『韓國靑磁陶窯址』, 1982; 『韓國白磁陶窯址』, 1986), 窯址集成의 노력에 비해 사진이나 내용소개가 미흡한 느낌이 든다.

1983년, 이화여대박물관에서는 '50년대에 입수된 扶安 柳川里窯址 출토의 대규모 破片을 정리하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는 바 (『扶安柳川里窯高麗陶磁』, 1983), 고려청자 2大産地의 하나이면서 거의 유적이 파괴되어 사라진 상대인 柳川里窯址에 대한 全貌를 밝히면서 고려도자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이외,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한 河東郡一帶의 朝鮮時代 窯址調査(1984년)는 鮮初 地方白磁 양상 파악과 日本 井戶茶碗의 성격규명에 도움이 컸으며, 국립광주박물관의 전남지방 陶窯址에 대한 年次의인 조사에서도 (『全南地方陶窯址調査報告』(I)(II), 1986, 1987) 새로운 요지와 자료들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咸平郡 孫佛面 良才里에서 고려초기청자와 함께 黑象嵌靑磁를 구운 요지가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다. 1987년, 安養 石水洞의 冠岳山 南麓에서 고려후기 백자요지가 발견된 것도 (『始興郡誌』, 1989) 중요한 성과의 하나였다.

• 研究成果

'80년대의 도자사연구는 '70년대 까지 한국도자사연구를 주도해 온 崔淳雨, 鄭良謨 이외에 姜敬淑, 尹龍二, 崔健, 金英媛등의 신진연구자들이 가세함으로 質, 量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도자사 연구방법에서도 기존의 양식변천이나 文獻史的 접근, 紀年銘中心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社會經濟史的 접근이나 고고학적 분석방법에 의한 形式學的 접근(호암미술관 龍仁西里報告書)등이 새로이 대두되었고 中國陶磁史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에는 특히 신진연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姜敬淑은 '60년대 부터 도자사연구를 하여왔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이때 이루어졌으며, '60년대 以來 분청사기연구를 계속, 전국에 걸친 요지조사를 바탕으로 編年에서부터 地域別 窯址別 특성등 粉靑沙器 전반에 대해 종합고찰한 도자사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다.(『粉靑沙器의 研究』, 1986, 一志社) 이어 처음으로

先史時代 土器에서 朝鮮陶磁에 이르는 한국도자사 전반을 총정리한 개설서인 『韓國陶磁史』(1989, 一志社)를 출간하였는 바, 이 冊의 발간은 이때까지의 연구성과가 일차적으로 국내학자의 손에 의해 총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도자사연구사상 매우 의미깊은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概說書의 경우, 지나치게 자료나 기존학설의 集成에 치중한 감이 있고 筆者의 陶磁史와 美術史全般에 대한 확고한 主觀과 연구들에 의한 일관된 서술체계를 보이지 못해 개설서로서는 체계정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尹龍二는 '70년대 후반 이래 계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요지조사를 행한 결과, 그의 손에 의해 새로운 요지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窯址分布가 체계적으로 재정리되었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도자사 全分野에 대한 새로운 학설들을 제기하는등 뛰어난성과를 이루었다. 「高麗陶磁의 變遷」(澗松文華, 1986)에서는 한국청자의 발생시기를 10세기 후반으로 보고, 象嵌青磁의 발생도 12세기 후반으로 보는 새 학설을 주장하였으며(「12世紀高麗青磁에 關하여」, 金元龍教授退任論叢, 1987), 「莞島海底出土陶磁器의 製作時期에 대하여」란 글에서는 綠青磁가 최초의 청자가 아닌, 11세기 중엽경의 西海岸 지방가마에서 생산된 粗質青磁라고 주장하였다(『黃壽永博士古稀紀念論叢』, 1988).

金英媛은 粉青沙器에 대한 形式學的 고찰연구 외에 中國陶磁史 연구에 노력하여 처음으로 번역본 『中國陶磁史』(悅話堂, 1986)를 출간하였고, 崔健은 '80년대 후반에 들어 工藝史의 입장에서 본 「韓國青磁發生에 관한 背景的 考察」(古文化, 1987)을 발표하고, 사회경제사적 접근에 의한 「朝鮮時代 後期白磁의 衰退要因에 관한 考察」(『韓國現代美術의 흐름』, 鄭良謨共著, 1988)과 「粉青沙器 成立與件에 관한 考察」(文化財, 1988)등 주목되는 論考들을 계속 발표하였다.

'80년대 도자사학계에는 갖가지 학술적인 주요 쟁점들이 부각되었는데, 1986년에 鄭良謨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新羅青磁說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도자의 발생시기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尹龍二에 의해 제기된 綠青磁의 11세기발생설과 象嵌青磁의 12세기후반 발생 및 고려도자에 대한 새로운 編年觀,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 陶器所문제등이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성과들에 힘입어, 「考古美術」과 「美術資料」에는 기존의 자료소개 수준은 탈피하여 본격적인 논고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考古美術」177·178合輯(1986)은 高麗陶磁 特輯號로, 이때까지의 성과를 집성하여 鄭良謨(總括편), 尹龍二(窯址편), 姜敬淑(高麗白磁편), 金英媛(中國과의 比較편), 鄭明鎬(土器편)의 논문들이 실려 있다. 이외 주목되는 몇편의 논문들이 『金元龍教授退任論叢』(1987, 姜敬淑, 李鍾宣, 尹龍二, 金英媛의 4편), 『黃壽永博士古稀論叢』(1988, 姜敬淑, 尹龍二의 2편)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韓國美術史學會 주최의 月例發表會와 全國歷史學大會 등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이 끊이지 않고 발표되었다. 기타 각 대학의 碩士課程에서도 많은 도자사 관계 논문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기존의 자료나 학설들을 정리하거나 형식론적 분석 등에 머물렀으며, 순수 미술사적 도자사연구 논문은 드문 편이나 이를 통해 계속 신진 도자사연구자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한편, '80년대에는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도자기에 관한 特別企劃展들이 수차례 열려 學界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韓國陶磁文化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국립중앙 박물관의 '靑磁特別展'이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靑磁, 粉靑, 土器特別展, 湖巖美術館의 '朝鮮白磁特別展 (I)(II)(III)' 등이 있었으며, 이때 발간된 圖錄類에 주목되는 論考들이 여러편 실린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였다.

回顧의 끝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北韓의 도자사 연구성과를 보면, 도자기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아, 美術的 價値가 높은 高級 陶磁類들이 노동의 착취로 생긴 산물로 여기어, 이에 대한 연구 수준이 극히 미미하였는데, '70년대까지는 거의 교양에 가까운 小考들을 2~3편 발표되었을 뿐이며 다만 1959년에 황해도 평천군 봉암리와 웅진군 은동리 고려자기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12세기, 14세기의 가마유구와 퇴적층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北韓에서도 도자사연구에 관심을 두는 듯, 「역사과학」 「조선고고연구」 등의 잡지에 수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대체로 기존의 학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나 다만 '80年代初에 발굴조사된 高麗王陵 및 高麗時代 遺蹟調查 결과에 의해 10세기에 이미 翡色과 象嵌手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대표적 논문으로는 왕성수의 「고려푸른사기의 발생발전에 대하여」(역사과학, 1982), 천석근의 「고려푸른사기의 무늬막이치장양식의 변천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1989)가 있다.

II. 展望

지금까지의 回顧 속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피력해 나가는 것으로 展望을 대신하고자 한다.

100년이 넘는 한국도자사연구의 긴 역사중, 우리의 손에 의해 조사, 정리, 연구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학문적인 성숙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쌓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研究史的 입장에서 보면, 일단 1970年代를 고비로 그 이전의 日人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성과의 영향하에서 거의 벗어나 國內學者 중심으로 도자사연구가 진행되었음이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런 연구사적 중요한 사건들이 불과 2~3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다만 놀라울 따름이다. 다시말해 도자사연구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현시점에서 전문연구자들이 10명도 채 안된다는 연구인원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 韓國美術文化의 긴 역사 속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빼어난 업적을 이루었고 또 가장 遺存資料量이 많은 陶磁史學界가 현재 여타 미술사 분야보다 質, 量面으로 뒤쳐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구인원의 부족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檢證과 이에 따른 문제의 導出作業, 여러가지 접근방법의 개발등 학문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진행조차 힘든 상황이며, 특히

도자사연구에 절대적인 자료가 되면서, 많은 인원과 시간, 經濟的 뒷받침이 요구되는 窯址調査와 發掘調査등이, 지금까지 미미하고 돌발적으로 행해졌을 뿐,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자사연구 발전에 제일차적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도자사의 입장이 繪畫史나 佛教美術史 등의 분야와는 달리 전국 도처에 수많은 요지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료수집과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방법으로 훼손, 소멸되어 가고 있어 자칫하면 도자사학자들은 역사적 죄인이 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現在 도자사학자들의 분발도 중요하지만, 위와같은 이유로, 中國의 경우처럼 거국적인 도자사 研究機關들이 각처에 조직되어 지역별로 調査, 保存, 蒐集, 研究活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지방별 도자사연구의 活性化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한국도자사연구가 당면하고 있는 학술적 문제들을 살펴 보면, 우선 土器의 연구들 들 수 있다. 지금까지 토기는 고고학의 주요 대상으로만 취급되었을 뿐 美術史的인 접근은 거의 없었는데, 陶磁史란 용어자체에 이미 土器(= 陶磁)까지 포함 하고 있어, 미술사적 입장에서 陶, 土器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 도자사연구자들이 이들 큰 과제로 삼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 현재 陶磁史學界가 안고 있는 주요 쟁점이나 문제해결을 기다리는 事案들을 보면, 한국도자의 發生時期 問題를 위시하여, 統一新羅土器와 高麗陶磁와의 관계, 綠青磁의 發生時期 및 性格問題, 象嵌青磁 發生時期 및 變化問題, 高麗時代 官窯와 地方窯와의 관계 설정, 高麗後期陶磁의 精確한 樣相과 粉青沙器와의 관계, 高麗土器의 實體窺明, 粉青沙器의 發生 및 消滅過程의 精確한 樣相, 朝鮮時代 青磁의 性格 및 消滅, 朝鮮白磁의 發生時期, 磁器所·陶器所의 문제, 靑華白磁의 發生 및 元·明代 陶磁와의 影響관계, 17世紀 靑華白磁의 實體, 廣州分院의 官窯 成立 및 상세한 變遷過程, 分院里 白磁의 自體內 變化相 및 消滅過程, 朝鮮時代 地方白磁의 樣相 및 官窯와의 관계, 分院解體와 日帝強占期の 窯業狀況, 甕器의 發生 및 位相 등과 日本陶磁에 미친 韓國陶磁의 影響관계, 中國 및 外國出土 韓國陶磁에 대한 연구등 수많은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외에도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한국도자사가 올바른 체계를 잡을 수 있겠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많은 도자사가들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問題解決을 위한 方便으로 研究方法論에 대해 살펴 보면, 우선 前述한 대로 도자사연구의 一次的 자료수집은 당연히 窯址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등에 의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활발한 窯址調査研究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方法論上的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볼 때,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樣式이나 形式論에 입각한 연구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絶對編年을 가진 基準資料나 文獻資料가 극히 드문 한국도자사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도자사의 학문적 특성 즉 고고학적 접근이 가능한 기초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이의 利點을 최대한 살리자면, 고고학에서의 '土器研究'와 같이 形式論的 접근방법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가 드문 형편이며, 따라서 도자사연구의 기초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전반적으

로 걸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자기는 工藝的인 屬性을 가진 관계상 기초자료, 즉 窯址나 遺蹟出土品의 수량이 매우 많은데, 이를 분석, 연구하기 위해서는 計量的 處理나 相對頻度의 개념, 連續性의 문제등을 포함한 고고학적 연구방법의 응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믿어진다. 이렇게 해서 地表調査資料나 現在遺物資料들을 대상으로 정밀하고 체계적인 형식적 분석을 가하여 기초 자료에 대한 科學化가 먼저 이루어 질 때, 도자사연구는 여타 分野보다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광범위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런 形式學的 연구는 발굴조사등을 통해 層位學的 檢證까지 거치면 완벽한 자료로 확정될 수가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기초자료의 客觀化, 科學化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만큼 도자사연구의 地平이 넓어지고, 자연 할 일 많은 도자사연구분야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들 것이라 생각된다.

以外, 앞으로 도자사연구자들이 해야 할 접근방법들을 열거해 보면, 일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통한 絶對 또는 相對編年資料의 集積과, 보다 세밀한 文獻資料의 集成과 分析 또한 기본적인면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中國陶磁史研究는 韓·中 도자사관계뿐 아니라 東洋陶磁 전반에 걸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국도자의 位相을 定立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일찍부터 주지되어 온 바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중국도자사 연구자가 없어 한국도자사연구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드시 중국도자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한층 심도있는 한국도자사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한편, 현재 모든 학문분야가 주변 학문과의 연대를 통해 接近方法論들을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전개시키고 있는데, 도자사분야에서도 美術史學的인 방법 외에 社會經濟史的이나 技術史的 접근, 機能的 접근등이 필요하며 自然科學的인 방법을 통한 釉·胎의 분석이나 絶對年代 測定등은 크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日帝 이래 통용되어온 도자사관계 用語를 改正하여,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면서 固有性과 國際性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定立해야 하는 일도 주요한 事案중의 하나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자사연구가 더욱 客觀化, 科學化, 組織化 될 때 韓國陶磁史研究는 크게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歐美의 연구들을 벗어나 世界陶磁史에서 드물게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한국도자사의 位相에 걸맞는 獨自的이면서도 客觀的인 연구들을 形成해야 할 것이다.